

공공기관 청년인턴·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1.12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pf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차

I 청년인턴

- | | |
|----------------------------------|----|
| 1. 꾀꾀, 마음을 눌러 담아 꾀, 꾀 | 6 |
| 2. 청년인턴으로 애매한 것이 정해진 남자 | 13 |
| 3. 청년인턴, 인생 제2막의 힘찬 도약대 | 18 |
| 4. 신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의 5개월 | 24 |
| 5. 진정한 인생의 멘토들이 모여 있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 30 |
| 6. 무경력 철부지 20대, 사회에 첫발을 내딛다 | 36 |
| 7. 인턴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 42 |
| 8. '청년인턴'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 50 |

CONTENTS

II

유연근무

1.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사원이 행복하면 회사도 행복하다 58
2. 신체 장애에 따른 불편을 해결해 준 유연근무제 64
3. 묵향과 전원생활을 즐기는 나는 홍보맨이다 68
4. 유연근무제 Win, 우리도 Win~! 74
5. 폭풍 육아 속 무지개 80
6. 1시간이 주는 행복! 88
7.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까? 94
8. 다섯 밤? 네 밤! 100

I

청년인턴



Part I

1. 꺾꺾, 마음을 눌러 담아 꺾, 꺾 6
2. 청년인턴으로 애매한 것이 정해진 남자 13
3. 청년인턴, 인생 제2막의 힘찬 도약대 18
4. 신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의 5개월 24
5. 진정한 인생의 멘토들이 모여 있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30
6. 무경력 철부지 20대, 사회에 첫발을 내딛다 36
7. 인턴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42
8. '청년인턴'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50

1

꼭꼭, 마음을 눌러 담아 꼭, 꼭

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명처럼 다가온 청년인턴 모집 공고

톡톡, 던지듯 점을 찍는 마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내게 학과 공부 외에도 봉사, 아르바이트, 동아리, 학생회 등 여러 활동은 모두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었다. 콧코 찍어 완성하는 점묘화를 그리듯, 이 모든 점들이 모여 훗날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했다. 내가 점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다양한 경험은 곧 나의 자신감이기도 했다.

당시의 나는 도전과 선택이 두렵지 않았다. 무엇이든 시도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내겐 조금 잘못 찍힌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학교를 졸업하자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이든 해보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표는, 여러 취업시험에서 낙방을 거듭하며 물음표로 바뀌어 갔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했지만, 기회는 쉽게 주어지

지 않았다. 우수한 성적으로 관련학과를 졸업한 나를 위한 그 한 자리가 없다니, 미처 준비 못한 좌절감을 맛보며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

부풀었던 거품들이 다 견혀 스스로에게 시시해져 있을 즈음,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다. 신장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평생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듣고 그 막막함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혜택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관련된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응급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집중 간호하던 한 달의 시간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변화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됐다. 취업이 안 된 어려운 시기에 닥친 아버지의 만성질환 발병 소식은 향후 내 삶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즈음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호기를 부리며, 재미없게 무슨 공공기관 청년인턴이라며 넘겨버렸을 법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실질적 혜택을 보고 그 보장성에 대한 고마움과 안정된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온 나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 운명적인 기회라는 직감이 왔다.

이 모든 진심어린 이야기들을 담아 지원서를 썼고, 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의 기쁨을 보게 되었다. 집 근처에 위치한 건강보험 부산남부지사로 첫 출근을 하며, 내 목표는 단 한 가지였다. '성실히, 그

리고 겸손히 배우자.’ 그 동안 재미있고 변화무쌍한 일들만 기대해오던 나에게, 공공기관의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무는 어떻게 분담되며 또한 연계되는지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지루함이 아닌 호기심 그 자체였다.

출근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관리파트에 배치받아,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이용지원 상담, 방문 모니터링, 각종 서류 입력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정해진 규정과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일정한 업무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자칫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내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며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의외로 업무에 담당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과 공단 내에서도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각각의 민원해결 사례들이 공단 업무에 단기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공단의 내부에서 고객만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곁에서 보면서, 그동안 곁으로만 보고 느껴오던 공공기관의 다소 구태의연한 이미지도 쇠신할 수 있었다.

자만심으로 실패한 정규직원 전형

인턴직원으로서 권한을 받은 일들에 이제 막 속도와 요령이 붙기 시작할 즈음 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정규직원 채용 공고가 났다. 이미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온 나에게는 당연히 욕심이 나는 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현직 인턴이기에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든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서류전형을 통과

하고,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전형까지 올라갔다. 최종 면접에서 인턴 생활에 대한 소감과 내가 느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고, 기본종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인턴 근무시간 중에 결과를 확인한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결과를 보고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던 나를 달래주시던 직원들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다음에 더 차분히 준비하면 꼭 될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운내.” 당시에는 그저 잔잔한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렸지만, 좌절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 겨우 마음이 안정되었을 즈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이 꼭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저 지금 현재 인턴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내가 될 것이고, 내가 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했고, 오히려 그런 자만심에 빠져 정작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인턴으로서 겸손히 배우고자 했던 그 마음가짐보다도, 인턴이기에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종의 혜택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심기일전 후 다시 찾아온 기회

그렇게 또 한번의 작은 성장통을 겪고 여름을 맞은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애썼다. 여기서 꼭 무언가를 이루어가지 않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했다. ‘인턴이니까 잘 모른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 또 ‘인턴이니까 몰라도 봐준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직원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에 임하려고 애썼다.

특히 소위 악성 민원이라고 불리는 화난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한낱 성가신 소리로만 듣는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민원상담 시에는 늘 나만의 원칙 두 가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 첫째, 경청하기, 둘째, 공감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치고 화난 분들의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힘겨운 일생의 고백이자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제언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들으려고 했다.

이 두 가지 원칙의 실천은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고, 화나고 흥분한 민원인들이 첫째 경청하기 원칙만으로도 마음의 진정을 찾고 공단의 취지와 업무방식을 이해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전화를 끊는 놀라운 일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이렇듯 공단에서 뜨내기로 있다가 뭔가 되어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정 공단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니, 그제서야 진정 내가 공단이 필요로 하는 성실한 전문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즈음,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 공고가 났고, 나는 한층 차분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써내려 갔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한번 최종 면접전형을 치를 수 있었다. 상반기 때의 다소 격양된 어조보다는, 보다 침착하게 진정성을 담아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린 최종발표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리고 인턴 계약만료일을 하루 앞둔 12월 30일까지, 나는 인턴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31일, 건강보험공단의 신규직원 임용식에 참

석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자부심을 가지기 충분한 청년인턴 경력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평택지사에 발령받아 주임이라는 직함을 달고, 여러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았기에 장애인 보장구 업무를 해보고 싶다고 지원서에 썼던 나는, 현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내가 아버지를 통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했던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등록업무 또한 맡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도 신기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공단에서의 청년인턴 경력은 내게 단순한 이력이 아닌 자부심 있는 경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나의 인턴경력을 자신있게 소개한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지사에도 세 명의 인턴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볼 때마다 인턴 동기와 깔깔 웃으며 지냈던 기억, 때로는 취업에 고민하고 실패에 좌절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미소를 짓곤 한다. 당시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는 인턴직원들에게,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장기적인 나만의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하면서도, 조금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인턴들에게 주어진 실무권한이 많아 실무경험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쌓일 수밖에 없으며, 인턴 선발 과정에서 이미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입사한 만큼, 정규 입사과정에서 서류전형이라도 면제

받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면 인턴을 통해 검증된 충실한 인재를 더 많이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설렘의 하루하루

아직도 내게 건강보험업무는 하루하루의 도전이며, 설렘이다. 다만 내가 작년 여름부터 그러하였듯, 이제는 그저 툭툭 던지거나 콧코크 찍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점 한 점 콧코크 정성스레 눌러쓰는 기분으로 생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콧코크 눌러진 점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나 자신과 건강보험의 미래에 커다랗게 완성된 그림 한 장을 선물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기대를 해본다. 나는 오늘도 민원인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전화기 버튼을 누른다. 콧, 콧. 

2

청년인턴으로 애매한 것이 정해진 남자

신 ○ ○(한국전력공사 근무)

대학생활 내내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겠다고 좌충우돌 뛰어다닌 청년! 결국 인턴으로 입사하여 벽찬 감동을 느끼고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인 LS산전으로 떠난 그의 리얼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What is your goal?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매학기 첫 시간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얘기들로 채워집니다.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그리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중심에는 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있었습니다. “그래! 난 꼭 한전에 입사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핵심 인재가 될거야” 대학 2학년, 이렇게 저의 목표는 세워졌습니다. 그 후, 한전 홈페이지를 제 홈페이지 드나들듯 하면서 한전 대학생 객원 마케터, KEPCO 체험단, 한전 장학생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과 동시에 한전에 입사할 것만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졸업을 앞두고는 부족한 토익점수와 자격증 때문에 불안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스펙이었나 하는 생각에,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턴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시간에 토익,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내가 미래에 할 일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What happen?

정식으로 인턴 배치를 받기 전,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웬지 모를 머쓱함에 띄엄띄엄 앉아있던 친구들이 어느새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저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연은 달랐지만, 인턴을 발판으로 취업에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한전 본사 배전운영팀으로 배치받은 첫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과 정전 현황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이곳에서 일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전 횟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품질'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후 매일 아침, 오늘은 정전이 몇 건 일어났나, 원인은 뭘까 고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인턴생활 동안, 변압기 소손 원인 통계, 배전 손실 방지 실적 등의 문서를 정리하는 일도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문서에 나오는 용어의 쓰임을 알기 위해 전공 책을 다시 뒤적이고 차장님께 여쭙보기도 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장님께서서는 친절하게 표를 그려 설명해 주시고 프린트 자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품질을 위한 직원분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토익학원, 퇴근해서는 자격증 학원을 다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세 끼를 해결하다 보니,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더 열심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을 위해 공부한 내용들이 업무에 나올 때면 실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머리에도 쑥쑥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인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공사기사와 전기산업기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멘토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말씀은 취업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한전에 대한 너의 열정은 잘 알지만 스스로 취업에 문을 좁힐 필요가 없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부딪쳐 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한전과 같은 업종의 기업에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모의 면접 테스트도 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몇 번의 고배를 마신 후에 LS산전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합격소식에 직원 분들 모두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인턴생활이 끝나갈 무렵,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덕분에 사회인으로서의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쑥스럽지만, 한 직원분께서 해주셨던 “○○이는 어디가도 잘 할 거야”라는 칭찬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의 인턴생활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LS산전(이하 회사) PAC Solution팀에 배치를 받고 PLC 설계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메모지와 펜이었습니다. 인턴생활 때부터 차장님들께서 부르면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뛰어가 필요한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해가면서 저만의 업무 데이터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신입사원 때라 배우는 것도 많고 정신이 없었지만,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덕분에 업무를 익히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니, 옆 자리에 계신 선배님이 뜬금없이 콜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전화 받는 태도가 너무 친절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좀 친절하긴 합니다. 인턴생활 동안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민원전화가 걸려왔고 이를 응대하다 보니 자연스레 상냥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회사의 전화 친절남이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나, 저에게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SMPS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문득, 우리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SMPS의 역할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지식과 인턴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SMPS를 공부할 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중요한 업무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What a Wonderful 청년인턴!

청년인턴 생활이 없었다면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 청년인턴은 '애정남'이었습니다. 취업의 고민, 인생의 고민으로 애매해 할 때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멘토분들이 계셨고, 그분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0여일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청년인턴, 인생 제2막의 힘찬 도약대

최 ○ ○(통일연구원 근무)

마냥 기쁘지 않았던 청년인턴 합격소식

2009년 대학원 마지막 학기, 마지막까지 논문 수정으로 인해 별도의 취업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에 전공(정치학)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상상하다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몇 번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마음을 비운 후, 인턴직 지원서까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청년인턴(연구인턴)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소식을 접하고도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길게 공부하며 학위를 받았지만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청년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인턴으로의 미약한 시작

출근 후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청년인턴을 행정인턴과 연구

인턴으로 구분지어 경력에 적합한 업무분장을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인턴의 업무는 각종 회의 참석 및 회의록·회의장 정리, 원고 교정, 관련 기사 정리, 복사, 문서 파지 등 기초적인 일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책상에 앉아 일하는 회사생활에 대한 환상을 접고 현실에 적응하여 낮은 자세로 하나씩 차근히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리없이 찾아오는 각종 기회들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연구원은 항상 바쁘게 돌아갔고, 늘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묵묵히 일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종종 찾아오곤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는 다른 인턴들에 비해 일이 배로 많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잦은 야근을 하면서도 많이 배울 기회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제 자신도 청년인턴이란 생각보다 본 업무의 담당자라는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 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지원과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실무에 직접 투입되어 해외출장의 기회까지 얻은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재도약의 기회

어느덧 10개월이 흘러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관련 분야인 현

재 근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개채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면접 시 질문 답변과정에서 지난 10개월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인턴으로서의 경험은 관련 분야, 동일 업계에 대한 성공적 취업의 핵심 토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청년인턴제도의 강점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 생각해보면 청년인턴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무런 경험 없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겪었을 법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인턴이라는 직급으로 조금은 덜 부끄럽게 배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문서 편집 요령,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 대인관계, 조직생활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입사 후 다른 신입사원에 비해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에 적응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의 값진 인연, 인맥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 전 자료를 준비하고, 음료를 세팅하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장을 정리하고,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결과보고서 초안을 잡는 것 등이 대개 인턴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만나 뵈 수 있었으며 이 분들과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인턴 생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외에도 함께 청년인턴으로 10개월간 동거동락했던 20여명의 인턴친구들 역시 인턴기간 동안 사귀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 시대 동년배로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며, 취업과 진로선택 등에 있어서는 각자가 서로에게 좋은 정보처였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며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4년째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청년인턴제도가 안정된 직장을 얻기 전 임시방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 자체로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인턴으로 있었던 통일연구원의 경우 청년인턴들을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분명한 역할과 임무를 주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청년인턴들과 함께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지원교육 등 능력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4대보험 혜택, 시내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연구원 개원기념행사 및 전 직원 워크숍 등의 여러 행사에 참여해 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직장생활, 미래계획 등과 관련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인턴제 관련 정책제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을 점검하면서 올해 약 1만 2,000명의 청년인턴 중 6,500명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퇴사자의 42.7%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취업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인턴제의 최종목표인 ‘취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인턴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의 전공이나 관심분야가 직무와 높은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자 본인은 물론 고용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을 고용한 기관은 청년인턴에게 단순 잡무 외에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기 때문에 스스로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잘못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인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청년인턴들로부터 근무기관이나 청년인턴 기간 동안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인턴제를 지금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인턴’이라는 용어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청년인턴제를 마련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청년인턴=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인턴들 사이에서 ‘청년인턴’이라는 어감

자체를 상당수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보다 긍정의 이미지를 내포한 용어로 순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심을 떠올려 주는 추억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진로에 대한 걱정, 이직에 대한 환상을 지니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청년인턴을 마치고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였지만 내 인생에서 과연 이 길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끔 던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인턴 시기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설레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인턴으로서 비록 회의 준비라는 단순한 업무를 맡았지만 내가 준비한 회의에 관계부처 장관님이 두 번이나 참석해 악수하며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경험,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에 지원인력으로 참여하였던 경력, 국제정치의 핵심무대인 워싱턴 D.C 출장 등 다양하고 풍부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내가 청년인턴으로 있으면서 담당하고 경험했던 일이니 앞으로 나는 이보다 더 큰일들을 담당해 나갈 의미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보곤 합니다.

10개월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ダイナ믹했던 청년인턴의 경험은 현재의 나를 만들고, 사회생활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분명 소중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신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의 5개월

안 ○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의 직장을 만나다

면접용 정장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느껴지던 날씨 좋은 5월 어느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공항 리무진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와 깔끔한 청사 건물에서 좋은 첫 인상을 받은 저는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곳에 꼭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인연이 시작되어 재미있고 알찬 5개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기업을 말할 때 ‘신의 직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이 쉽고 편하며 잘못을 하여도 계속 다닐 수 있는, 흔히 말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밖에서 공기업을 보았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들어와 직접 근무하며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의 직장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의 직장이 맞습니다. 조직문화가 훌륭하고 직원들의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며 일류 공항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항상 씩씩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상 바빠 움직이고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탐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못사람들의 편견처럼 일이 없어 한가하고, 해고의 우려가 없어 과오에 무책임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 때마다 우수 협력업체를 표창하고, 임직원의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해 주는 모습 등은 우수한 조직문화를 배양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가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한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신의 직장을 즐기다

저는 누구보다 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즐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부서에 배치되었고, 계약 상대방인 외국 공항장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해외지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행정업무 처리, 요청물품 구비 및 송부, 파견자 교육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 수주 촉진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외 공항

에 발송할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였습니다. 인쇄된 뉴스레터 창간호를 제 손에 받아보던 날 너무 뿌듯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며 자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뿐 아니라 저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곳은 회사라는 조직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던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며 많이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배치되었던 해외사업단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해외지원그룹의 회식은 직원 가족분들을 모두 초대하여 치러졌습니다. 팀장님, 대리님의 아내분들을 뵈었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타며 색다른 회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식자리에는 술이 함께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족을 동반한 회식은 또 다른 느낌의 회식문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단 워크숍, 체육대회 등에서 족구, 산행 등의 활동을 통해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회사라는 조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의 직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의 인턴생활을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아주 색다르고도 자랑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8월경,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분야는 캐치프레이즈와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UCC 제작이었습니다. 해외사업단에 배치된 저와 다른 두 인턴은 서둘러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가요를 개사하여 노래를 만들고, 노래방에서 녹음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는 영상에 쓸

사진을 찍기 위해 회사 곳곳을 누볐고 편집을 거쳐 UCC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UCC는 부문 대상을 받아 사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월례조회 때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많이 걱정하였는데 예상 외로 표창까지 받게 되어 신기하고 뿌듯했고 인턴생활의 추억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즐거운 인턴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인턴 동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첫 만남이 언제였냐는 듯이 금방 친해진 동기들은 2박 3일간 진행되었던 팀 빌딩 워크숍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단합과 협동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만들었던 도미노 작품은 개봉 순간 모두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새벽 3시까지 계속된 난타연습에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서로를 격려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든 모습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워크숍 이전과 이후가 너무도 다를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것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조별 프로젝트에서는 모두가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며 모든 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의 직장을 꿈꾸다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어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모였을 때, 동기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채용’이었습니다. 어떠한 특전이 있는지, 우리 중 얼마

나 많은 인원이 채용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조건,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회사에 갓 들어와서 개인 PC를 받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던 정신없던 시간이 지나자 저는 입사 시험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들으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갑자기 업무가 많아질 때에는 개인 공부는 잠시 미뤄두어야 했습니다. 또 조별 프로젝트 발표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발표 준비를 위해 업무 이외의 시간은 전부 프로젝트에 쏟아 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각오대로 어떠한 곳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저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업무, 워크숍, 회식자리, 조 프로젝트 등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고 10월 10일, 인턴직원 수료식에서 저는 다른 6명의 동기들과 함께 우수인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여전히 필기시험과 논술고사를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었던, 또 일하면서 더욱 오고 싶어진 이곳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인턴 동기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모든 청년 구직자가 부러워하는 기업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예

비 사회인들이 사회를 향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수인턴 제도를 활용하여 동기애를 다지면서도 건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킨다면 저와 같이 청년인턴제를 통해 좋은 경험과 기회를 얻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진정한 인생의 멘토들이 모여 있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박 ○ ○(한국수자원공사)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비상하다

“박○○씨, 우리 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9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했고, 청년인턴 제한경쟁 정규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최종면접에 오게 되었네요. 우리 면접관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 순간은 저의 인생을 바꿔 놓은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최종면접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공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많고 많은 공기업 중에 왜 하필 한국수자원공사를 선택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종종 저희 처장님,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그냥 물이 좋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합니다. 이에 대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꿈이 수영선수였던 저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체육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여자 수영 국가대표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물과 함께하는 것이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물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마쳤고, 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시작한 인턴생활

9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추운 겨울날, 졸업을 앞둔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 속에 취업목표 No.1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 행정학과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적합한 ‘해외사업본부 해외기획처’에서 너무 일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대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속전속결로 인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무실, 그 속에 크기는 작아도 저에게는 너무도 크게 보이는 책상,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정받은 팀의 직원들은 한창 해외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사업 준비에 무척 분주해 보였습니다. 여러 계약서가 오가고, 사내 직원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의 전화 속

에서 저는 갈 곳을 몰라서 망설이는 망아지처럼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높은 토익점수, 많은 자격증, 교환학생 경험, 봉사활동 등 나름대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성취해본 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쓸모없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포르투갈 상하수도 회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문 전날, 부장님께서 “박○○씨, 내일 회사에 손님이 오셔서 수도권 통합운영센터와 대청댐, 본사 여기저기를 둘러볼 계획인데 차장, 대리를 따라서 함께 다녀오도록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했던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 귀빈들과 견학 일정을 함께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장님과 대리님이 외국 귀빈들을 대할 때,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임에 굉장히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운영센터와 본사의 댐 통합운영센터를 견학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부장님께서 저를 보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몰랐던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난 후, 저는 작은 업무가

주어져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인턴으로서 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부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통의 인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업무에 투입되어 일을 배우고 역량을 키우다

준비가 한창이었던 해외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사업을 위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는 내부적으로 재무적 효율성 향상과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내부심의 과정을 두었습니다. 저는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국제경쟁 입찰사업의 준비절차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이 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께서서는 저에게 회의에 들어와서 꼼꼼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난 후, 보고서를 만들어 제대로 보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내내 일어나는 일들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쳤고, 회의록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완성하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칭찬과 꾸지람을 들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6개의 내부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러 번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작성한 결과, 저는 해외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

해할 수 있게 되었고, 중남미 물시장의 흐름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사업본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 세계 물산업 소식지에 소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팀 담당지역인 중남미 물시장에 대한 기사를 찾아서 번역하는 일도 매우 흥미를 가지고 했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년인턴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복사와 스캔 정도의 일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일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왔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제가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에 부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언제나 외국인 직원이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하여 말벗이 되어 주고, 근무시간 틈틈이 해외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정규직원 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다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청년인턴 제한경쟁 정규직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부쩍 다가온 시점에, 팀원들은 모두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가 일하고 있는 해외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셨고, 곧 있을 면접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우리 공사

의 경영현황에 대해 알려주고,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필기 합격 후, 매일매일이 모의 면접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해외사업본부의 직원들과 우리 공사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진 결과,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여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턴 입사 첫날부터 정규직원에 채용되는 날까지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일을 배웠고, 그분들의 배려 덕분에 필기시험과 면접을 알차게 준비하여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멘토들이 모여 있는 곳, 한국수자원공사. 저는 그 곳에서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순수, 열정, 창조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6

무경력 철부지 20대, 사회에 첫발을 내딛다

신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의 첫 만남

대학 4년간 공직자의 꿈을 가지고 공부했다.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부모님의 배려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았다. 거듭된 실패 끝에 더 이상 확신하지 않은 길에 인생을 내맡길 자신이 없어 고시공부를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해 봤지만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내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소위 말해 88만원 세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마침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턴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접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력서를 냈다. 운 좋게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합격통보를 받고 뿔듯이 기뻐했다. 그렇게도 원하던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5기 인턴으로 선발된 우리 24명은 4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합숙교육과

1일간 등촌청사에서 그룹웨어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3일간의 교육은 조직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 마지막 날 그 이름도 낯선 정보화성과평가부에 배치받고 나니 비록 인턴이지만 부서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생겨났다.

4월 28일 긴장 반, 설레임 반 속에 무교청사로 첫 출근을 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내게 아직은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에 긴장감은 눈녹듯 사라졌고 행복한 인턴생활이 시작되었다.

인턴으로서 수행한 업무들

국내외 모든 IT 관련 통계 수집

같은 부서라고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서의 경우 정보화 평가 및 진단분석, 정보화 사업평가, 정보화 통계 및 동향분석으로 나누어져 있고 조사·분석 분야를 지원한 내가 부서에서 맡은 업무는 정보화 통계조사였다. 처음 한 일은 국내외 모든 IT 통계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처음 배치받은 인턴들이 가장 많이 갖는 불만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막상 일선에 나와 보니 단순 업무만 시킨다는 것이다.

실무경험이 전무한 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대학 4년

동안 바로 실무로 연결될 수 있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장 일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게다가 내가 일하는 곳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부이므로 학부 수준의 알팍한 공부만을 한 내가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생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때 했던 작업이 후에 보고서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 이름이 실린 『IT 통계로 본 대한민국』 발간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다. 멘토와 함께 내 이름이 실린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따로 매년 진행되는 발간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공동 작업에 응해주신 멘토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처음에는 목차잡기도 힘들었지만 다년간 IT통계 관련 일을 해오신 멘토의 도움으로 파트를 나누고 해당 파트에 들어가야 할 지표들을 정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적인 업무는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국내외 모든 IT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엑셀로 정리해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간의 통계를 통하여 IT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IT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정보화통계집 발간 참여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화통계집 작업에 참여하였다. 정보화통계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국가 정보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멘토를 도와 전화 검증작업, 가제본 검토 작업 등에 참여하며 국가승인 통계조사의 진행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각종 행사에 활력소 역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턴은 8개월간 임시로 있는 직원이라 해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소외감을 느낄 틈이 없다. 점심을 먹을 때나 회식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원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최근에 신입직원 채용이 없었던 탓에 인턴을 가족처럼 대해주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며 즐겁게 근무할 수 있었다.

인턴생활을 통해 얻은 것들

진로에 대한 성찰의 기회

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막연하게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으나 인턴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과 실무경험을 통해 대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왜 공부하고 싶은지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IT통계로 본 대한민국』을 작업하면서 IT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DATA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내가 전문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부 수준의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취업이 안돼서 도피처로 대학원을 택한 것이 아니라 깊게 연구해 보고 싶은 분야가 생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취업만이 목표가 아니던 내게 공공기관의 연구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소중한 인연

인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사람이다. 첫 직장이자 첫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 남짓한 인턴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직원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직원과의 관계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없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마치며...

청년인턴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한 일도 많다. 사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턴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인턴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업무에 국한되고 인턴들 스스로도 임시로 거쳐 가는 곳 혹은 공백 기간을 두지 않기 위한 대안쯤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무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 보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상황은 똑같다. 그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기왕 하기로 한 것 실전처럼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인턴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최 ○ ○(한국산업은행)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가 지금 취업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조금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무르뭉도사 : 오늘의 의뢰인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치열한 취업전선에서 승리하여 당당히 한국산업은행에 취직하게 된 최○○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최○○ :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이 지금 취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르뭉도사 : 반갑습니다. 치열하고 혹독한 취업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려운 산업은행에 입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뢰인 최○○씨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뽀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르뭉도사 : ○○씨를 검색해 보면 연관검색어로 청년인턴제도라는 검색어가 뜰 정도로 청년인턴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신데 어떻게 청년인턴제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최○○ : 저는 어려서부터 은행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교 출신에 유학도 다녀오지 않은 제가 은행에 취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하며 오로지 취업만을 위해 공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중한 친구들과 나의 인연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소홀히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취업전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에 실패하니 “내가 지방대 출신이고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핑계만 생각하고 현실을 타하며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청년인턴을 뽑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머리에 한가닥 빛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취직하기 힘들다고 소문난 산업은행에서 인턴활동을 하며 꿈꾸던 은행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인턴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산업은행에 지원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돈까지 벌 수 있으니 목마른 저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청년인턴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청년인턴제도를 지원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인턴에 대한 불확실함과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청년인턴제도라는 문을 두드렸고, 인턴생활을 하면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를 얻고, 많은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배웠기에 제가 꿈꿔온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었으니까요.

청년인턴제도가 나에게 남긴 것

무르팍도사 : 그렇군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날 취업 성공의 가장 핵심은 청년인턴제도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살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 : 아! 이 프로그램 독한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취업성공의 열쇠는 청년인턴제도 맞습니다! 청년인턴 시절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출근하여 선배님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준비 등 선배님께서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

습니다. 또한 틈틈이 선배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죠. 이런 제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선배님들께서는 제가 궁금한 점들을 잘 가르쳐 주셨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과 앞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많은 팁들까지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배운 정보들과 팁들이 취업을 준비하던 때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단순히 인터넷이나 취업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이 아닌 제가 직접 직장생활을 하며 느끼고 배우고, 또 제가 꿈꿔오던 직장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며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들이니까요. 이렇게 인턴생활을 하며 배운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느낀 점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잘 스며들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인턴 동안 일만 했냐구요? 물론 아닙니다. 가끔씩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선배님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인턴생활을 하며 제가 꿈꾸던 직장의 선배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선배님들과 친해져서 술 한잔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인턴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직업관을 주제로 이야기했던 때입니다. 여러분의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취업 준비중에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의 직업관은 아마 ‘높은 연봉과 유명한 대기업 = 좋은 직장’이라는 공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생활을 하며 친해진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직장이란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회사가 아닌 내가 즐겁게 일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직업관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경험을 통해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꿈꿔 왔던 직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저의 직업관에 맞는 저의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직장을 목표로 하여 즐겁게 맞춤형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말하고 보니 청년인턴제가 저에게 남긴 것이 정말 많이 있네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직업관을 저에게 주었고,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그때의 열정과 희망 이러한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청년인턴제도가 저의 취업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제 그가 청년인턴제도를 말한다

무르뭉도사 : 마치 인턴교 교주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하하.

그럼 ○○씨에게 있어서 청년인턴제도는 무엇입니까?

최○○ : 저에게 있어서 청년인턴제도는 ‘꿈이라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름의 날개’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금융권에 취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 중에는 명문대 졸업자에 유학도 다녀오는 등 흔히 말하는 높은 스펙의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스펙에 너무 연연하여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높은 스펙만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지방대를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산업은행 청년인턴제도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잘 살렸기에 우수한 스펙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저의 꿈인 산업은행에 입행하게 되었으니까요.

무르뭉도사 : 정말 청년인턴제도는 ○○씨와 땀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뢰인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쉽지만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최○○ :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이 말의 본래 뜻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속담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딱딱한 바위에 몸을 던지는 계란의 무모함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바위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계란의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며 대기업과 고액의 연봉을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에게 청년인턴제도는 취업을 위한, 불안해 보이는 작은 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난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꼭 취업과 나의 꿈을 모두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청년인턴이라는 문 너머의 밝고 푸른 세상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꿈꾸며 도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바위를 향해 몸을 날리는 계란의 용기와 뜨거운 심장, 그리고 푸른 꿈을 가지고 청년인턴제도와 함께 성공취업과 꿈의 실현을 향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디세요!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르팍도사 : 장시간의 인터뷰였죠?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 취업전선의 치열함과 의뢰인의 취업성공에 힘이 되어준 청년인턴제도의 유용성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 무르팍도사는 청년인턴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취업 준비생들 또한 청년인턴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파악하고 기존 인턴제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는 등 새로운 시각과 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을 때 청년인턴제도라는 좋은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취업전선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독자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 치여 선물과 같은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청년인턴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서서 청년인턴제도와 함께 여러분의 취업 성공과 꿈을 실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무르팍도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청년인턴’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김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생생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지원한 청년인턴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청년인턴 면접에서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었다. 4년 동안 대학교육을 받았고 휴학을 하고 각종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했지만, 나는 자신이 없었다. 실력적인 면에서의 두려움보다 나를 더 망설이게 했던 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실수를 해도 웃어넘길 수 있었던 학생 때와는 달리, 사회는 차갑고 냉정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졸업 후에 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채로 소속감 없이 무기력하게 있을 수도 없었다. 또 다시 독서실 책상에 앉아, 소화 안 되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사람처럼 박제된 지식을 공부할 것을 생각하면 갑갑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해서 곧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내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청년인턴’ 이다.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서, 실수를 해도 조금은 용서가 될 것이었고 또한 실제 현장에서 생

생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탓에 '원자력'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자력 홍보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졸업을 앞둔 6월 3일부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청년인턴으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다.

많은 도움을 준 '멘토링' 제도

모든 것이 자율적이었던 대학생 때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매일 아침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는 일들이 힘들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명함과 사원증을 보며 '직장인 놀이'라며 즐거워했다. 또한 우리 회사는 크지 않은 편이어서 모든 직원이 친절하게 인턴들을 맞아주었고 차근차근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멘토링' 제도를 이용해 인턴들에게 각각 '멘토'를 정해주고 업무를 배우게끔 하였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입사 후, 처음 3개월은 '기획행정실'에서 업무를 익혔다. 이 시기에 주로 내가 한 일은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지식경제부의 업무연락방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실뿐 아니라, 각 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간략하게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연락방을 통해 수시로 공지

사항이나 자료 요구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문서작성 요령을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업무 외에도, 중간중간 홍보 전략을 작성할 때는 지역주민 자격으로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셨는데, 내 아이디어가 보고될 때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또 한번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해외여론 동향을 조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미국 원자력연구소(NEI),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담당자에게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 결과, 정말 뜻밖에도 내가 원했던 자료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한참 ‘기획행정실’에서의 업무가 손에 익어갈 때쯤 ‘국제협력실’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MOU를 통해 축적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 올림피아드>, <원전 국민수용성 증진 국제워크숍—IAEA공동>, <한국-프랑스 원자력 홍보세미나> 등 각종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9월~10월 두 달 동안은 ‘국제협력실’에서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을 도왔다. 나는 인턴이었지만, 가까이

에서 이런 국제적 행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청년인턴들이 실수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크고 중요한 일들은 맡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들은 ‘실수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가 어렵다. 나의 경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에 넘쳐났고, 실수를 통해 “다음에는 이 점에 더욱 신경 써야지”하며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초대장을 만들면서 오탈자를 놓치기도 했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뺀 경험들은 실수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워크숍과 세미나의 영문 발표자료들을 국문으로 요약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는데, 세계의 원자력동향과 최근 이슈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특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논리 등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과도 같았다. 이것은 시중에 출판된 자료가 아닌, 생생한 현장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자료였기에 더욱 가치가 있었다.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고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

우리 회사는 ‘청년인턴제’가 잘 정착되어 있다. 작년에도 8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업무를 익히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으니, ‘청년인턴제’가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임은 분명하다.

보다 성공적인 ‘청년인턴제’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고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수할 것을 염려해서 수동적이고 사소한 업무만을 맡긴다면 그들은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욕구가 위계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욕구단계이론’을 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청년인턴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다. 최소한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액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동기 부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청년들에게 맡겨주길 권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이 집단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것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 역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청년인턴을 사회생활이

무서워서 잠시 거쳐가는 도피처로 여기거나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생생한 지식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젊은 날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청년인턴’이라는 네 글자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제 곧 있으면 이곳에서의 인턴생활이 5개월째로 접어든다. 목 뒤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첫 출근을 했는데,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시간의 경과를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나는 과일이 영글어가듯 성숙했고, 막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입사 전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막연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전공인 ‘심리학’과 원전 지역주민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원전 국민수용성 증진’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남은 인턴기간 동안, ‘실수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계속해서 누릴 것이고, 내 꿈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나는 나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청년인턴 김○○”라고 소개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청년인턴’이라는 네 글자 안에 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온다. 물론 이 네 글자 안에는 실수와 불완전한 모습도 숨겨져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 ‘청년인턴’이라는 네 글자를 내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정착되었으면 한다. 

II

유연근무



Part II

1.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사원이 행복하면 회사도 행복하다 58
2. 신체 장애에 따른 불편을 해결해 준 유연근무제 64
3. 목향과 전원생활을 즐기는 나는 홍보맨이다 68
4. 유연근무제 Win, 우리도 Win~! 74
5. 폭풍 육아 속 무지개 80
6. 1시간이 주는 행복! 88
7.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까? 94
8. 다섯 밤? 네 밤! 100

1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고, 사원이 행복하면 회사도 행복하다

김 ○ ○(한국서부발전(주))

일과 양육으로 힘들었던 직장생활

1999년 5월.

핑크빛 철쭉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회사 정문을 들어섰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것이 새삼 믿기지 않는다.

돌이켜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찬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곳이자 나의 예쁜 아이들을 키운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선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견디게 해준 곳, 그 뒤를 이어 함께 세상을 떠나신 나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게 해준 곳.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나의 청춘, 그 절반의 시간을 함께한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직장이자 삶의 터전인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 본부이다.

결혼하기 전, 나의 어머니는 간경화 말기로 6년 가까운 시간을 병상에 계셨다. 직업이 간호사인 나는 4남매 중 둘째임에도 어머니께 장녀이자 보호자나 다름이 없었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 6년을 어머니 병 간호를 했었다. 병환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셨다가도 갑자기 응급상황으로 밤이고 새벽이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고 병원에서 밤샘을 하고 출근하던 시절이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된 어머니 병 간호에, 회사생활에 지쳐 있던 내게는 1년 가까이 아이 또한 생기지 않았다. 오랜 병환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인 양 첫 아이가 내게 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에, 친정어머니도 없고 시어머니조차 도움을 주실 여건이 되지 않아 백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출근하며 아팠던 마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주변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이지 뼈저리게 느꼈던 그 시절, 아무리 남편이 많이 도와 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육아는 엄마의 책임이고 아빠는 육아의 서포터라고 생각되는 사회에서 그렇다고 여성이라고, 육아를 한다고 직장생활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 늘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종종거리며 나 자신은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나의 20대가 끝났다.

둘째 출산과 남편의 지방 발령

시간이 또 흘러 30대가 되고 아이가 조금 커서 가정도 직장도 모두 안정 될 쯤 기다리던 둘째 아이가 내게 왔다.

첫아이를 키우며 종종거리던 그 때는 어느새 잊고 둘째 아이에 대한 기쁨에 차 있을 때 이번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직 5살인 큰 아이와 이제 태어날 아기까지 혼자서 키워야 한다니 첫아이를 키우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울며 회사를 다니던 그 날들이 다시 생각이 났다. 그때는 정말이지 ‘이제는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 역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회사를 그만 둔다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우리 사업소 특성상 여성 사원이 전체 5% 미만인데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사원 또한 없는 상황이었고, 나의 업무(보건관리) 특성상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수도, 간호사가 하는 업무이긴 해도 산업간호사 전문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1년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직장만큼 가정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회사에서 먼저 사직보다는 휴직을 권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의 일도 끊임이 없듯 육아도 끊임이 없었다. 조금 키워 한숨을 돌리고 나니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릴 적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초등학교에 가니 엄마

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 그나마 학기중엔 어찌해보았으나 40일이 나 되는 방학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직장에 다니며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워킹맘들에게는 출산보다 양육의 문제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출산 장려라니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지려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운이 좋았던지 그때 마침 유연근무제에 대한 회사 내부규정이 확립이 되어 공표되었다.

‘유연근무라니.....’

그 동안 부모님 병 간호와 육아 때문에 힘겨울 때마다 꿈꾸었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가끔 민간기업 등에서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적마다 얼마나 부러웠던 제도였던가.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연근무제

단순히 나의 힘듦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아프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과 늘 일하는 엄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바쁜 엄마와 같이 늘 바쁘게 지내야만 했던, 보고만 있어도 맘이 짠한 나의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유연근무제였던 것이다.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으니 “엄마는 왜 나는 안해주고 동생만 집에서 돌봐줘? 나랑 동생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으니까.” 하고 말하던 큰 아이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비록 방학 동안이지만, 그리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엄마가 “오로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게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나의 단시간 근로가 시작되었다.

나에게는 아이의 방학 때문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아이에게는 긴 방학을 여유로워진 엄마의 근무시간 덕분에 엄마가 아닌 아이에게 맞춰 방학 스케줄을 짜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은 나는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은 좀 더 계획적이고 성실히 나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제를 사용하고 나니 주변의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온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하니 어떠한지 나는 말한다. 더없이 유용한 제도라고.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직장 선후배 맘들은 모두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리고 나처럼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사람뿐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직장과 육아를 계속 같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 정답도 나오지 않는 고민을.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요즘 신세대 여성들은 대개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신세대 남성들은 대부분 미래의 배우자가 맞벌이를 해서 더 풍족한 생활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결국 점점 출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모든 메스컴은, 출산장려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더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직장과 육아를 함께 하는 나와 같은 여성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또는 베이비시터의 양성이라든가 또는 일과 함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회사 내의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의 성립과 확산 등이 더욱 필요한데도 말이다.

어디선가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매일 시간에 쫓기며 사는 직장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회사 내에 생기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힘겨워 하는 많은 여성들이 나와 같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믿는다.

“사원이 행복하면 회사도 행복하다.”

그리고 회사의 행복은 곧 회사의 지속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2

신체 장애에 따른 불편을 해결해 준 유연근무제

신 ○ ○(한국광물자원공사)

근무시간 선택제 활용하여 재활치료

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총무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장애 치료 재활을 위해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상군경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일주일에 2회씩 재활치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월요일 7시~ 12시(5시간), 화~목요일 7시~18시(10시간), 금요일 7시~12시(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매주 월, 금요일의 오후 시간을 재활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전 군복무 중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학병으로 복무하며 신병들에게 화염지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 실습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3주가량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초기 조치와 치료 부족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지뢰 파편으로 인해 왼쪽 눈이 실명되었고, 왼쪽 뇌에 박혀 있는 지

되 파편으로 신체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레 다가온 장애에 대해 거부감과 좌절감이 들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불편한 점이 더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에 익숙해지고 현실에 적응하며 지내던 중, 올해 3월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재활치료를 하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6월부터 광명의 성애병원에서 주 2회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 및 병원까지의 이동에 3~4시간이 소요되었고, 퇴근 후에는 재활치료가 되지 않는 여건 때문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던 도중 올해부터 공사에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 광물자원공사에서는 3월 말 “단시간근무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5월부터는 단시간근무제뿐 아니라, 시차출퇴근제 및 근무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단시간근무가 더 많겠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은 부담스러워 요일별로 근무시간 및 출근시간 조절이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면서 부담없이 주 2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집 근처 병원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주 3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재활치료 결과 어깨 통증이 완화되어 올해 초 물건을 집기도 힘들었던 상태에서 간단한 물건은 들 수 있었고, 지금은 가벼운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증을 안고 업무를 보다 보니 집중력이 저하된 적도 종종 있었지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재활치료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어 업무 집중력도 기존보다 상승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선택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면서 번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변화는 없었지만 통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시간을 재활치료 및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보다 증가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에 활용해야

현재 한국에는 약 300만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같은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 2~3회의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이러한 치료들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근무중이거나 심각한 경우는 퇴사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장애인 채용에 있어 이런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유연근무제를 장애인 고용 및 주변 인식 개선에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통해 재활 및 치료의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킨다면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장애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다”라는 슬로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조금 불편함이 있는 동료”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목향과 전원생활을 즐기는 나는 홍보맨이다

임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시작하면서

유연근무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생소한 느낌이 들었다. 서머타임(summer time)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근무하게 하는 형태는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일단 직장 경력 40년 만에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 속에서 직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 직원 설명회가 끝난 후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들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원의 현실에서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여러 형태 중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하여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기로 하였다. 이 ‘한 시간’이 나의 삶에 많은 변화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나의 하루하루는 풍요로움 그 자체이다.

홍보맨의 업무리듬에 적합한 시차 출퇴근제

내가 맡고 있는 대외협력실은 국회, 홍보, 사회공헌 업무 등 기관을 대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언론 등 대외의 시선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은 주요 조간신문을 훑어보고 우리 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나는 무척 분주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홍보맨은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 늘 나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정도 빠른 8시에 출근하여 아침 9시 본부 회의시간까지 조간에 실린 우리 원의 소식을 정리하고 혹시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는 등 허겁지겁 정신 없는 오전 시간을 보내왔다.

유연근무제를 시작하면서 나의 하루 일과는 30분 빨라졌지만 내가 몸으로 느끼는 여유로움은 30분 이상이다. 아침 7시 30분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면 로비에서 경비원이 반겨주며 우리 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건네준다. 우리 실은 중앙일간지 외에도 국토일보 등 전문지까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지 무게만도 만만치 않다.

두툼한 신문지 뭉치를 가슴에 안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켜놓은 일부 전등만이 나를 반긴다. 일상의 소음이 사라진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나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의 눈으로 세상 속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아침 시간의 여유로움을 갈구하는 홍보맨들에게 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하고 싶다.

묵향으로 마치는 하루 일과

어느덧 17시가 넘어 퇴근할 시간이다.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나 혼자 퇴근하려니 미안한 마음으로 망설이고 있으면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라고 채근한다. 그래야만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자기들도 유연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하면서.....

6월이라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퇴근한다고 사무실을 나서니 이상한 마음이 든다. 지난 회사생활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퇴근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길어진 퇴근 이후 일과를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평소부터 언젠가는 배워보리라 마음먹었던 서예학원에 등록하였다.

70대 초반의 서예학원 원장님은 평생 서예학원을 운영해 오신 분으로 내가 쓴 글을 보시면 송곳같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한 자 한 자 붓 끝에 정신을 집중하여 한지 위에 좋은 글을 써내려 가면 하루 동안 묻었던 마음 속 때가 말끔히 씻겨내려 가는 것 같다. 글씨체는 내 마음의 표현이라 했던가? 조금씩 정제되어 가는 나의 글을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내 정신도 맑아지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겨난다.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서예를 권하고 싶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붓의 감촉과 코끝을 간질이는 묵향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원주택에서 즐기는 주말 여가

평일 오후는 이렇게 서예학원에서 정신수양을 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2003년도에 마련한 양평 전원주택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달려 간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나는 금요일 18시 30분 퇴근하여 저녁을 먹고 21시에 양평으로 출발했었다. 그러다 보면 한주 내내 쌓인 피로가 몰려오면서 바로 잠자리에 들기에 바빴다. 하지만 유연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17시 30분경에 퇴근하여 바로 출발하면 양평 전원주택에는 19시 20분경에 도착할 수 있다.

여름에는 낮이 길기 때문에 도착할 즈음에도 어둡지는 않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한 주 동안 마당과 밭의 풀은 얼마나 자랐는지, 채소는 얼마나 자랐는지, 산짐승의 피해는 없는지 등등 집 주변을 꼼꼼히 살펴본다. 어디 수리할 곳라도 있으면 나는 바로 연장을 꺼내든다. 집 구석구석 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동안 아내는 한 주 동안 자란 상추며, 고추며, 깻잎 등을 따다가 저녁을 짓기에 여념이 없다. 가끔 동네 주민들이 막걸리를 들고 찾아오면 함

께 저녁을 먹는다. 보글보글 잘 끓인 된장국과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야채 그리고 맛나기로 소문난 용문산 막걸리로 저녁을 먹으니, 밥맛은 어찌나 좋고 뒷집 아줌마가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부른 배를 두드리며 마당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이 내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내와 나는 그야말로 시골 농사꾼 차림으로 텃밭을 돌보며 일과를 보낸다. 주말에만 돌봐줄 수 있지만, 큰 병충해 없이 자라는 녀석들을 보고 있노라면 기특하기도 하고 마치 자식을 키울 때와 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맑은 공기와 농사의 기쁨, 이웃간의 돈독한 정... 전원생활의 매력이란, 아마 도시에서의 숨 쉴 틈 없는 일상을 보낸 자에게 더 달콤하리라.

끝마치면서

오랫 동안 꿈꾸어오던 서예를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시간에 쫓겨 허둥대던 전원생활이 여유롭게 되었으니, 유연근무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나비효과란 말이 있듯이 하나의 작은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가장 필수적일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본인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통해 자기 역량개발은 물론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근로문화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전

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유연근무제가 직장마다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4

유연근무제 Win, 우리도 Win~!

김 ○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산으로 선택한 시간제근로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처음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입사했던 때는 20대였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이며 한 아이의 엄마인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2004년 8월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입사하여 국립공원 사람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국립공원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규직이지만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평생직장 국립공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3년간 아기가 없다가 작년에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아기기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하루하루 날씨는 지나고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는 언제 쓰지?,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을까?, 아기는 어떻게 하고 출근하지?’ 등 무수한 생각으로 몸이 무거워지는 만큼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늦깎이 학생이던 친정 엄마가 아기를 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의 학업이 더 중요할 법도 한데 이제 겨우 3개월이 된 아기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냐며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듯 나섰던 것입니다. 친정 엄마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하여 친정 엄마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2월에 출근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2.46kg으로 3주 빨리 태어난 아기를 두고 처음 출근한 날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안심하고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집을 향해 있었지요. 또 4시간마다 유축기¹⁾로 유축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에서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어서 유축하는 것은 자유로웠지만 오랜 기간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기가 6개월 될때까지 모유 수유를 하자’가 목표였답니다. 지금은 유연근무제의 도움으로 ‘돌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하자’로 바뀌었지만요.

이처럼 아기와 친정 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한 회사생활이 한 달 정도 되자 조금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마다 모유 수유

1) 유축기(乳蓄器/機)란 수유 보조도구의 하나로 아기의 엄마가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를 짜내어 저장하는 도구를 말한다.

를 하고 시도때도없이 깨는 아기와 가사일은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거기에 산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 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후조리는 출산 후 6개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 행정과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씨~! 유연근무제라고 시간제근로제가 있는데 지금 수미씨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생각해 보고 결정되면 연락 줘.”라며 힘이 되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때의 행정과장님의 전화 연락이 지금의 저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면 회사생활에 대한 감도 유지하고 아기에게나 친정 엄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덜해질 것 같아 전환을 결심하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주일에 3일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유연근무제

친정 엄마의 늦깎이 공부는 계속 이어졌고, 아기에게 직접 모유 수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친정 엄마와 아이에게 점수를 땀다고나 할까요? 육아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친정 엄마와 육아를 분담하니 저 자신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국립공원 특성상 주말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업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일주일에 두번 만나는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일자리를 나눠준 친구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그 친구는 일주일 중 주말에만 근무였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제근로제가 끝나

가는 8월의 끝 무렵이 되었을 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근무했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어떤 것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좋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진지한 저의 물음에 그 친구의 답변 또한 진지했습니다. 청년인턴처럼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밝은 이미지와 활발한 성격이 된 것 같아 좋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주말이라는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어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그 친구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제근로를 시작

다시 전일제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아쉬워하는 그 친구도, 친정 엄마도,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한 아기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상의하고, 시간제근로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고 지금처럼만 한다면 시간제근로를 연장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충실해야 한다.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잘 할 때 직장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남편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가정생활과 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던 소장님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의 소중한 시간제근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은 친정 엄마에게는 중간고사를 잘 치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들은 기어다니며 말썽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컸으며, 일주일에 이틀이지만 자기 용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어 좋다는 저의 일자리를 나눈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제도

물론 시간제근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간제근로의 유일한 단점은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급여로 생활하는 급여생활자에게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큰일이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점을 살펴보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겨울처럼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빨라졌을 때 조기 출근,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어 출·퇴근 시 직원의 안전 확보에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번 유연근무를 통해 육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간제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형태에도 놀랐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4가지 유형(시간제근로²⁾, 탄력근무제³⁾, 근무시간 선택제⁴⁾, 집약근무제⁵⁾)과 근무방법의 집중근로제⁶⁾,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에 따른 재택근무제⁷⁾와 원격근무제⁸⁾ 등 7가지 유형은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제도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육아 부담자, 학원에 다니

는 자기 계발자, 간병 등 고용 유지가 필요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이지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원의 행복입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말이에요. 10개월 간의 유연근무를 통해 친정 엄마는 5개월 후 졸업장을 수여받고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대학 수시입학에 합격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11개월로 건강하게 첫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함께 나눈 친구는 국립공원에서 경험한 사회생활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 Win, 우리도 Win~! 

-
- 2) 시간제근로 :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 3) 탄력근무제 :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4) 근무시간 선택제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5일 40시간 범위 내 근무조정
 - 5) 집약근무제 : 총근무시간을 유지하며 5일 미만 근무
 - 6) 근무방법의 집중근로제 : 핵심 근무시간 설정
 - 7) 재택근무제 :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8) 원격근무제 : 모바일 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5

폭풍 육아 속 무지개

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쟁터 같은 우리집 아침 풍경

“6시야. 빨리 일어나”

새벽녘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깡까 알람소리도 울리지 못하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남편의 채근에 노곤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숙면은 뒤로 하고 그냥 누웠다 일어난 듯한 몽롱한 정신으로 일어 나는 게 몇 년째인가. 네모난 양은도시락에 든 찬밥을 탁탁 흔들어 빼낸 듯한 내 자리. 내 오른쪽 자리는 밤중 수유해야 하는 막내, 왼쪽 자리는 첫째, 아빠와 바닥에서 자던 둘째도 어느새 내 발밑 자리를 차지하고 잔다.

여느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는 말 그대로 전쟁이다. 회사와 집이 멀어, 34개월, 13개월된 형제를 아침 일찍 들쳐 안고 나와야 하는 일상은 정말 녹록치 않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아침 일정이 있는 날이면 혼자 형제를 맡기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제 딸아이와 조카를 같이 살피야 하는 동생에게 미안하고 눈치 보이기 그지없다.

출근이 이른 남편은 7시 전에 나가 둘째 담호를 근처 동생 집에 맡겨야 한다. 린호를 1분이라도 더 재우고 싶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살살 달래면서 깨워야 무사히 눈을 뜨지만, 대체로 잠이 덜 깬 린호를 들쳐 업고 나가야 일쑤다. 아이들은 그저 잠을 푹 자는 게 보약인데, 부모의 늦은 귀가와 이른 출근에 길들여진 안쓰러운 형제. 어린이집 바다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것도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하다.

아이들을 맡기고 회사까지 꼬박 1시간. 아무리 서둘러도 출근시간 가까이 슬라이딩하기 일쑤고, 더 일찍 집에서 나오자니 1분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어미 맘이 참 슬프다.

“엄마, 배고파요. 뭐 먹을 것 주세요.” 바쁜 출근시간 잠 덜 깬 아이들을 몰아 차에 태우면 가는 내내 즐거나 짜증부리기 일쑤다. 과일이나 떡 몇 조각으로 아침 밥상 전쟁을 차 안에서 치른다. 제대로 먹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한 채 막히는 출근길 운전만 다급하다.

집에 오자마자 씻기고, 뭐라도 차려 먹이고 놀아주면 금방 9시. 수시로 감기 걸리는 아이들 약 챙기고, 책 읽어 재우면 11시가 다 되어야 한숨 돌릴 수 있다. 아이들 재우다 같이 잠들어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널거나 씻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제야 정리하고 아이들 수첩과 준비물을 챙기면 12시가 넘고, 다음 날 똑같은 아침 전쟁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며 살텐데, 왜 나만 더 힘든 것 같을까?

아이들은 기질이 예민하다. 주 양육자인 외할머니와 떨어져 이른 어린이집 입소와 이사로 인한 주거지 변화. 급격한 환경 변화와 만삭인 엄마

의 무심함에 린호는 아침마다 머리 박으며 울어 재껴 어린이집 적응에만 5개월 걸렸다. 곧 태어난 담호가 22개월차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형제는 같이 살게 되었고, 그즈음 또 셋째가 태어난다. 혼자 받던 사랑은 세 쪽으로 나뉘고 형제들은 각자 사랑받기 위한 나름의 욕구를 온몸으로 표현한다. 아이들과 눈 맞추고 꼭 안아주기 어렵고, 그저 깨우고 재우기에 급급한 일상.

축복처럼 찾아온 셋째 아이

“선배~ 오늘 점심은 간장계장 먹자.” 간장계장만 있으면 밥 두 그릇 푹 딱. “너 린호, 담호 가졌을 때마다 간장계장 찾더니 혹시 셋째 들어선 거 아냐? 임신테스터기 남은 것 두 개 줄테니 해 봐라. 혹시 또 모르잖아. 으호호” 전혀 그럴 리 없다. 듣는 둥 마는 둥 선배가 먹다 만 계딱지를 들고 밥 반 공기를 더 먹는다.

절대 그럴 리 없다. 테스터기를 방치한 지 여러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테스트. 하자마자 기다릴 겨를도 없이 너무나 선명한 빨간 두 줄! 벌써 8주.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세상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신기한 일들도 많으니 셋째도 그런 신비한 별이 품에 안겼다 생각하란다. 그 날 이후로 입덧이 오는지 속이 괴롭다. 이왕 생긴 것 딸일지도 모르니 낳자는 남편과 달리, 여기저기 말도 못한 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또 일주일이 간다.

“일하면서 어쩔려고 또 낳는 거냐~” “언니가 직접 안 키우니까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서 자꾸 낳는 거 아냐!” 시댁에서도 친정에

서도 반갑지 않은 별이 된 셋째. 육아와 직장에 지쳐 언제 손 잡았는지 기억도 없는데 첫째 아이 돌이 지나자마자 둘째가 들어서더니, 두 아이의 육아와 직장에 더욱 지쳐 있던 중 둘째 아이 돌이 지나자마자 셋째가 들어선다. 누가 그랬다. “니 팔자엔 애가 셋이야. 셋째가 니들한테 복덩이야” 나는 그렇게 딸이기를 바라며 신비한 별 셋째를 품에 안았건만. 결국 삼형제를 이룬다.

직장 복귀를 앞두고 젖을 끊기 위해 무명베로 가슴을 칭칭 감은 채 린호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오는 가을빛 해질녘. 바지런히 엄마 젖을 파고 드는 송아지를 보며 흐르던 마른 눈물. 그렇게 직장에서 툼툼히 짠 냉동모유로 친정 냉동실을 꽉 채우며 두 아이를 키웠고 9개월짜리 셋째도 모유로 키운다. 잦은 유축으로 인해 손목은 시큰하고 손가락은 따당따당 방아쇠 수지가 되어 통증의학과 신세도 졌지만 새끼들에게 모유 수유만큼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한 시간 늦은 출근으로 찾은 가정의 행복

셋째 낳고 전쟁 같은 90일을 보낸 후 복귀하고 나니, 직장에선 선택근무제를 실시중이었다. 몇 년 전부터 원하는 제도였으나 보수적인 조직문화 때문인지 시행하지 못하더니만 이제야 왔구나. 더없이 반가운 마음에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선택근무제 신청서를 낸다. 영어학원에서 자기 계발을 하거나 요가로 망가진 건강관리나 할까 싶다가도 아침마다 억지로 눈 떠 짹짹거리는 세 마리 새끼를 보고 있으면 어미 맘이 여러진

다. 아직까진 애들이 우선이다.

비록 한 시간 늦은 출근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늘 정신없이 아이들을 깨워 몰고 나가기 바쁜 아침시간을 한결 여유롭게 챙길 수 있다. 자는 아이들을 억지로 깨우지 않아도 되고 잠 깨기 전까지 먼저주고, 쪽쪽 몸놀이를 해 주며 사랑을 줄 수 있다. ‘삼형제라 해서 하나로 주던 사랑을 세 쪽으로 나누지 마세요. 하나의 사랑을 세 배로 만들어 똑같이 줘야 해요.’ 아침마다 충분한 스킨십과 대화, 마음 비우기로 세 배의 사랑을 담아주려는 노력을 알아주는지 아이들도 엄마를 도울 줄 아는 예쁜 청개구리가 되어가는 듯 하다.

전에는 거의 못 챙기던 아침밥도 이제는 챙긴다. 완벽한 밥상은 아니지만 여유를 갖고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고, 제 식판의 밥을 스스로 다 먹는 식습관도 자리잡는다. 간단한 양말이나 바지는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일상에 늘 뒷전인 남편을 위해 벅타이도 골라줄 수 있고, 컨셉에 맞는 양복색도 맞춰주고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주거나, 술 마신 다음 날은 콩나물국까지 끓인다. 그런 시간적 여유는 일과 가사를 완벽하게 챙기는 완벽 주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다.

아침잠을 충분히 자고 요기까지 한 아이들은 기분이 좋다. 어린이집 가는 내내 차에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지나가는 버스, 자전거, 구급차와 대화한다. 무엇보다 예쁜 봄꽃이 주는 설렘, 초록빛 풀밭이 주는 싱그러움, 황금빛 들판이 주는 땀방울의 소중함, 은빛 추위가 주는 청량함 속에 계

절의 변화도 온몸으로 느낀다.

수퍼맘이 되게 해 준 선택근무제

지금은 출근 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아이들이 아침 먹는 사이 짬을 내어 셋째에게 따뜻한 젖을 물리고 온다. 직수(직접 젖을 물리는 모유 수유)를 하니 모유가 줄지 않고 눈 마주치며 사랑까지 담아줄 수 있으니 앞으로도 몇 개월은 더 먹일 수 있다. 건강한 모유를 먹어서인지 100일이 지나 뒤집고 아랫니가 삐죽이 솟아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형제. 지금의 수호 또한 그렇다. 그 옛날 내 껍데기 엄마가 그랬듯, 내 알맹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 뿐이다. 내 살결에서 넘쳐흐르는 생명의 숨결은 내 알맹이들에게 따뜻한 눈짓과 기운 찬 몸짓, 세상을 향한 넉넉함을 담아줄 것으로 믿는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이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 감기, 수족구, 신종플루까지 갖가지 잔병을 달고 산다. 아이 둘 데리고 소아과 가는 것도 전에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늦은 오후 조퇴를 해야만 했다. 병원행이 잦으니 직장맘은 눈치가 보인다. 이제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접수·진료 후 어린이집에 들러 출근해도 10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진료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출근 전, 동네 보건소에 들러 셋째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챙긴다.

줄줄이 삼형제 출산과 연이은 직장과 육아 병행으로 온가족이 강행군이 다. 직장에서 유축하며 삼형제 키우는 엄마, 아침 일찍 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아빠, 두 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큰형이지만 아직은 아기 같은 린호, 가운데서 형과 동생에게 치이지만 의젓하고 양보 잘 하는 둘째 담호, 이모 손에서 크지만 이유식 잘 먹으며 짹째기 기어다니는 막내 수호까지. 건강한 삼형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양육전쟁도 큰 행복이라 여길 줄 아는 마음짓기 완료다.

작은 혜택이 주는 큰 기쁨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막내가 이제 한 살이니 육아전쟁은 앞으로 5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확고한 신념을 세우고 사랑과 대화로 보듬으면 결이 고운 멋진 보배로 자라날 것이다. 알토란 같은 새끼를 고이 품어 키우는 일상이 극성스럽지만 초롱초롱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그려갈 내 알맹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행복하다.

우리 직장에서는 8% 내외의 직원들이 자기 계발, 육아,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선택근무제를 꾸준히 유익하게 활용한다. 앞으로 업무진단을 통해 재택근무나 대체근무 방법을 더 체계화할 예정이라니 삼형제를 거두는 직장맘 기대 충만이다.

물론 선택근무제로 인해 삼형제와 큰 아들을 거두는 나의 삶이 한없이 윤택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혜택으로 인해 아이들을 한번이라도 더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시간적 여유는 우리 가족에게는 더 없이 값지다. 단비 같은 한 시간의 촉촉한 아침을 우리 가족처럼 알차게

활용하는 직원이 또 있을까? 내년에는 셋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 삼형제를 데리고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맘의 폭풍 육아는 배가되지만, 무지개 같은 선택근무제가 함께 한다면 직장맘은 화이팅할 수 있다. 

6

1시간이 주는 행복!

서 ○ ○(국민연금공단)

늦은 결혼에 어렵게 얻은 이른둥이

유난히도 추웠던 그리고 눈도 정말 많이 왔다는 2006년도 12월 1일 아침 8시 35분, 48시간의 긴 산고의 고통 속에서 1.83kg의 아주 작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친정 엄마의 병환으로 인한 긴 간병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늦은 결혼에 어렵게 얻은 아기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아기는 다 소중하듯이 34주 만에 태어난 이른둥이를 저는 2일 만에 의식을 찾고 나서 집중치료실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보는 저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일주일간은 같은 병원에서 지내고 부득이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아기와 저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에 비해 폐 기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호흡이 곤란하기도 했고 집중치료실에서 2kg 이상 체중이 늘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한번 먹는 양이 20cc 정도라 쉽게 체중이 늘지 않았고 소화기능도 원활하지 못해 모유가 절실했습니다.

급성 임신중독 증세로 조산한 저는 그 치료로 인해 초유를 먹이지 못하고 아기에겐 직접 수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모유량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 12월 1일로부터 24일째 되는 날 아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듯 겨우 2kg이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첫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일이 지나고 저는 직장으로 출근할 상황이었습니다. 휴직이 가능하였지만 친정 엄마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남편의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복직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분을 찾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기가 낮가림이 워낙 심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울었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아도 놀라고 기계음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광고지도 붙여보고 면접도 보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낮가림과 분리불안에 인큐베이터에서 있었던 상처인지 모르나 작은 기계음에도 예민하여 엄마인 제가 옆에서 꼭 안아주어야 안정을 취하곤 했습니다. 어렵게 아기를 돌봐주실 분을 구하고 같이 한 달을 생활하며 소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는 아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달래며 울음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출근하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과 함께 아기를 안고 출근을 했다가 사무실 앞에서 보내는 등 정말 힘든 24개

일을 보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두고 출근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시던 분을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8시~9시 사이에 오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았고 저와 같은 워킹맘의 아이들인 어린이집에 몇 명 안되는 아이들과 친숙해지지 않아 이 역시 아침마다 저의 다리를 붙잡고 우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와 저는 울면서 헤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주말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는데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집에서 나랑 놀았으면 좋겠어”라고... 저는 아이에게 “엄마는 우리 ○○도 소중하지만 엄마가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평일엔 회사에 가야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대신 주말에는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놀아줄게” 라고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더 커야 울지 않고 아침에 헤어질 수 있을지, 다른 아이들은 잘도 적응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적응을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 정말 아이를 돌보면서 친정 엄마를 간병하면서 가사일, 직장일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말 그대로 수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 그리고 친정엄마 돌봄 등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정도의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내

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도 수없이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직장에 맞춤형 근무라는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와 좀 더 시간을 갖고 울지 않고 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2011년 1월부터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을 하는 근무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주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아이의 옷가지를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1시간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

처음 한 달은 그 시간도 역시 아이가 울어서 어려웠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제 8시 20분에 헤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7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해주고 다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등원한 시간에 유치원에 데려다 줌으로써 아이는 유치원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24명인데 전에는 8시경에 2~3명만 유치원에 오기 때문에 유치원이 무섭다고 하였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는 유치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7개월 동안 저에게 행복하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준 1시간의 행복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종종 직장 동료분들 중에 “전에 우리가 아이 키울때는 정말 힘들었어. 요즘에는 정말 좋아진거야.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에 이제 맞춤형 유연근무까지 도입되고 정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들한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아이를 어린이

집에 데려다 주고 아침도 못 먹이고 직장에 올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아이를 키웠겠지만 이런 제도가 더 일찍 도입되었다면 좀 더 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행복한 1시간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8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다니는 공공기관이 아닌 전체 기업에서도 이 제도가 점차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발생되겠지만 그 단점보다는 저와 같은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 역시 제가 다니고 싶고 꼭 입사하고 싶었던 직장이었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이 직장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직장생활이 되었는데 가사와 아이 양육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는 직장 동료 중에 남자직원들도 아이 양육과 자기 계발을 위해 맞춤형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다면 생활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유연근무를 하는 동안 같은 부서 내 직원들이 늘 격려해주고 혹시나 마음을 쓸까 염려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시간이 주는 행복은 나머지 직장에서 일하는 8시간의 행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혹시나 맡은 일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생각에 스케줄을 미리미리 작성하여 누

락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효율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양육 모두 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제가 태어나서 흘린 눈물 중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흘린 눈물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저와 같은 유연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거창한 제도의 도입과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아기의 양육과 일을 둘 다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작년에 84세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행복했겠지라고. 그리고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번에 수기를 쓰면서 그동안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못했던 직장 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씩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직장 생활에 늘 감사하며 주말에는 아이와 셋이 가까운 산에 단풍구경을 갈까 합니다. **윤영**

7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까?

-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준 스마트워크 체험기 -

이 ○ ○(예금보험공사)

좋은 남편과 아빠 ≠ 일 잘하는 직원

‘숙면을 취해본 게 언제였지? 아내와 살갑게 대화해본지 몇 개월이나 지났지? 주말에 마음 편히 딸아이와 놀아준 적은 있었나?’ 일년 전, 한 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는 통근용 109번 만원버스를 타면 으레 나를 감쌌던 의문들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곰 한 마리를 엮은 것 같은 무거운 어깨와 그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눈꺼풀이 나를 기다렸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근심이 많아 보였던 아내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간의 대화는 사라졌다. 생후 30개월이던 딸아이는 나를 어색해 하며 안기기를 꺼려하는 것도 모자라 가끔씩 나와 눈이 마주치면 울음을 터트리기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출퇴근 시간에만 세 시간 가까이를 소비하는 내게 숙면이란, 아내와의 대화란, 딸아이와 놀아주기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적된 피로를 안고, 쳇바퀴처럼 반복되던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던 내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는 길이 멀고도 힘든 길이라면, 업무 능력에 탁월성을 발휘하는, 일 잘하는 직원이라도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았다.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업무가 발등에 떨어져도, 막상 업무시간에는 각종 전화와 민원 응대로 인해 시간이 나질 않았다.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깨어 있는 딸아이를 보지 못한 채 한 주가 지나간 적도 있었다. 일 잘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가족들과는 더 멀어지고 있었다. ‘좋은’ 까지는 아니어도 ‘나쁜’ 남편과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스마트워크 센터를 아시나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남편과 아빠,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잘하는 직원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느 한쪽을 심각한 불균형의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의욕을 잃고 점점 지쳐갔다. 거기다 미처 풀지 못했던 피로 탓에 몸 상태는 적신호를 깜빡이며 건강을 위협했다.

이대로 불행과 맞닿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던 어느 날, 도봉구청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로 출근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제야 전에 스마트워크 근무와 관련해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떠올랐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개인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유연근무 형태에 관한 의견을 적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워크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처럼 일과 삶의 균형잡기에 실패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겨 스스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났다. 단순히 잠깐의 위로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로 실현되어 스마트워크 센터에 근무할 기회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밑져야 본전인데, 의무가 아닌 혜택으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센터 근무에 임해보자!'

첫 센터 근무 날 느꼈던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일어날 수 있었다. 집에서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는 도봉구청까지는 종로 1가를 오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한 시간을 훌쩍 넘기던 출근 시간은 30분이면 넉넉했다. 남들이 들으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부족한 수면과 만성피로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나에게 아침잠 한 시간은 효과 빠른 보약 그 이상이었다. 가까운 거리라는 장점은 수면시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시간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아침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

터는 아침을 제대로 먹은 기억이 거의 없던 내게 든든한 아침식사가 주는 건강함과 활기참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

도봉구청 스마트워크 센터의 첫 느낌은 '쾌적하다'는 것이었다. 업무를 위한 편의시설의 상태는 회사에 전혀 뒤지지 않았고, 회사보다 더 깔끔하다는 인상도 받았다. 센터에서 안내를 해주는 직원 역시 친절해서 별 무리없이 센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센터에 출근해 회사 포털에 접속하는데, 처음에는 보안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원들의 개인 정보나 회사 내부의 기밀자료를 처리할 때는 무엇보다 보안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걱정도 잠시, 전용망을 깔아 두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센터 측의 얘기를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센터의 분위기는 회사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다.

여기에 회사에서 주를 이뤘던 각종 전화업무나 민원업무까지 없다 보니 업무처리에 있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덕분에 센터 근무를 하는 날이면 미리 계획했던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도의 야근 없이 계획했던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내게 큰 의미였다. 회사에서 이를 동안 야근하며 끝내야 할 일을 센터에선 하루 만에 마친 경우도 있었다. 센터 근무의 유일한 단점은 직장동료들과의 연대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눴던 반면에 센터에서 근무하는 날은 혼자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야근이 줄어든 나는 다시금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행으로 점철된 듯 보였던 나의 일상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로 갖춰진 셈이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하는 기분

최근 모 이동통신사에서 보다 빨라진 인터넷 속도를 광고하기 위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하는 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주말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광고다. 일 년 전의 나라면 광고의 표현을 부러워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을 확률이 크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 센터 근무를 하게 되는 주는 그야말로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의 내 상태를 광고가 적절하게 표현해준 것이다.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센터 근무를 해도 그 효과는 대단하다. 하루의 센터 근무는 한 주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가장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덕분에 나머지 회사 근무일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줄고,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고되기만 했던

출퇴근길은 늘어난 수면시간과 줄어든 스트레스로 이제는 견딜 만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 센터 근무를 하던 중에 딸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획했던 업무를 이미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퇴근시간을 조금 남겨두고 아이에게 달려 갔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 내내 딸아이는 내 목을 꼭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몇 개월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동화책을 읽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낸 탓일까? 일년 전, 눈도 잘 마주쳐주지 않았던 딸아이는 이제 내 품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딸아이를 곁에 두고 아내를 위한 된장찌개를 끓여보았다. 인터넷과 요리책을 뒤져가며 완성한 된장찌개를 아내가 그 무엇보다 맛있게 먹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끝에 우리 부부는 서로 뽀뽀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꿈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았던 무거운 내 어깨는 아내의 정성이 담긴 손놀림에 마치 어깨가 없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좋은 남편과 아빠, 능력 있는 직원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나의 결론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은 예외가 되어 버렸다. 나는 지금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자상하고 든든한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가정과 직장, 그 무엇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채 고단하기만 한 일상에 놓여 있을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기관에서 스마트워킹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금요일 퇴근' 하는 기분을 알았으면 한다.



8

다섯 밤? 네 밤!

이 ○ ○(신용보증기금)

지방근무 발령과 결혼 준비

“따르릉, 따르릉” 요란한 알람소리가 정적이 깃든 새벽 아침을 깨운다. 아침 6시. 언제나 참기 힘든 ‘5분만 더’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섬주섬 속옷을 챙겨든 채 샤워실로 향한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간절하고 스스로에게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늘날만큼은 단호해져야 한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어젯밤 왜 조금 더 일찍 잠들지 않았을까 구시렁대보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열흘 전 태어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배냇짓을 보며 잠든 터라 기분은 더없이 좋다. 출근 준비를 마친 후, 곤히 잠든 딸의 이마에 뽀뽀하며 얘기한다. “우리 딸, 네 밤 자고 보자!”

2010년 1월, 입사한 지 만 2년이 갓 지났을 때 즈음, 정기인사 발령문에서 낯익은 이름과 낯선 곳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30여년 동안 줄곧 서울에서만 살아온 내게 경북 칠곡에 위치한 칠곡지점의 첫인상은 그

다지 반갑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니, 첫인상이랄 것도 없었다. 서울 촌놈 주제에 다른 도시라니, 생소하고 두려웠다.

히나 어찌겠는가. 우리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지방 순환근무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이해하고 있던 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심정으로 이불더미를 비롯한 이삿짐 행렬을 꾸려 칠곡으로 향하게 되었다. 주위 선배들이 얘기하는 지방근무의 장점 -입사 3년차 새파란 후배에게 보내는 그분들의 위로였을지도 모를-을 귀에 박히게 들은 터라 처음과 달리 어느 정도 설렘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타지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서울보다 약하다던 업무 강도는 과연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고 향토맛집이나 지방 명승지가 이곳에는 있거나 한 건지, 설사 있더라도 즐길 시간이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물론 아직 일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일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이 환경에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게다가 같이 근무하는 지점 직원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지점 특성상 직원들 사이의 인간적인 끈끈한 정은 서울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지점장님부터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움과 관심 덕에 지점 생활도 큰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었다. 정작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곧 내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학생 시절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해오던 지금의 아내와는 2010년 하

반기 즈음에 혼인을 하기로 미리 언질을 주고받은 상태였다. 직장도 정해졌고, 상견례를 비롯한 결혼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신혼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던 와중이었다.

탄력근무제로 극복한 물리적 거리

결혼준비 과정에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양가 친지분들에 대한 인사부터 소소한 집안 혼수용품 결정까지 둘이 의논해야 할 것이 점점 늘어만 가는 때도 이 즈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칠곡 간의 그 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반갑게 다가올리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6년간 교제했던 시간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약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났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야 주변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사실 그리 심각하게 다룬 적도 없었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나와 아내 모두 회사 퇴근 후 쉬지도 못한 채 결혼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 정도 피로감은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진정 아쉬웠던 점은 아내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느낄 때, 예전과는 달리 내가 바로 아내를 보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처음 접해 볼 생활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기대감뿐 아니라 부담감도 함께 느끼고 있을 아내를 퇴근 후의 짧은 전화통화로 위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주말마다 여기저기 들러야 할 곳은 어찌나 많은지, 외

형적인 결혼준비만 진행되고 있었을 뿐 진정 결혼에 대한 우리 둘의 마음 가짐 준비는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주말마다 계획이 딱 차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할 때까지 나와 아내 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2010년 봄의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난 이런 고민을 팀장님께 털어놓았다. 힘들다고 징징대고 싶었던 걸까. 특별한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결혼생활 선배에게 하소연을 한 것뿐이었지만 팀장님께서는 우리 회사에 '탄력근무제' 라는 제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자고 말씀하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얼핏 들어보기만 했을 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이 탄력근무제를 통해 나와 내내는 훨씬 더 윤택한 결혼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이 탄력근무제 - 우리 회사의 유연근무제 -는 내 생활에 단순히 한 시간 이상의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금요일 정규업무 마감시간인 5시 30분보다 한 시간 앞선 4시30분경 퇴근하여 좀 늦은 시간일지라도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저녁을 먹게 된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기 전, 늦은 시간 서울에 도착하여 이미 퇴근한 아내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무리였기에 금요일은 아내를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를 통해 이제는 서울역에 저녁 7시 30분경 도착할 수

있게 되었고, 남대문 부근에서 근무하다가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아내를 만나 저녁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마음 속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단언컨대, 마치 서울에서 함께 근무하는 커플처럼 때로 가볍게 맥주도 한 잔하며 얼굴을 맞대고 속깊은 이야기를 했던 이 시간들 덕분에 우리의 결혼준비 과정과 지금의 결혼생활이 더욱 풍족해질 수 있었다. 오히려 서울에서 근무했다면 개인적인 일정으로 각자 바쁠 수도 있었던 이 금요일 저녁시간을 온전히 아내와 함께 보냈던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지금도 가끔 얘기하곤 한다.

탄력근무제가 가져다 준 ‘긍정의 에너지’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난 뒤, 월요일에 적용받은 탄력근무제를 통하여 이제는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철곡지점으로 출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월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한 시간 야근을 하는 대신, 업무시작 시간인 9시 30분보다 한 시간 늦은 10시 30분까지 지점에 출근하도록 하는 이 제도 덕분에 일요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요일 저녁 인기 개그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시청하고, 임신중인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교 동화를 읽어줬던 일들은 탄력근무제가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소중한 기억들이다. 그리고 얼마 전 태어난 소중한 내 딸아이와 하룻밤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월요일 출근길을 행복한 충만감으로 채워주는 그야말로 ‘긍정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이해해주시고 부분적인 업무공백 시간을 대신 메꿔 주는 선배 직원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전보다 한층 더 업무에 매진 하게 된 점도 탄력근무제가 가져온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탄력근무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일 테니 말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 두고 일요일 저녁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발 걸음은 더없이 무거울 것이며 누군가의 말처럼 마치 ‘군대에서 휴가 복귀 하는 기분’ 일지도 모른다. 탄력근무제가 없었다면, 또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더라면 본의 아니게 군대 재입대를 경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금요일 저녁식사를 기차역 주변에서 대충 때우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을 ‘다섯 밤’ 이 아닌 ‘네 밤’ 만 자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탄력근무제는 내게 바로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1년 12월 13일 인쇄

2011년 12월 16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삼신인쇄

©한국조세연구원 2011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